# 전남 한우 품질 저하 '비상'

## 3년 새 1등급 비율 줄고 3등급 이하 크게 늘어

## 道, 2012년까지 4천466억 투입 '고급육 생산'

앞으로 미국·호주산 수입 쇠고기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전남지역 한우의 품질이 갈수록 떨어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전남농협과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남지역 농가가 출하한 한우 1등급(육질+육량) 이상 출현율은 최근 3년새에 가장 저조한 반면 3등급 이하는 크게 늘었다.

한우 등급중 육질등급은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고기품질을 1++, 1+, 1, 2, 3등급 및 등외로 구분한다. 또 육량등급은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등심 단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기량의 많고 적음을 표시하는 기준으로 A, B, C 등급 및 등외로 구분한다.

올해 1~6월 전남지역에서 출하된 한우는 총 2만7천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천206마리와 2006년 1만8천578마리에 비해 각각 17.7%, 31.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육질과 육량을 함께 평가하는 1등급 이상 출현율은 2006~2008년 상반기 동안 53.8%→2007년 47.8%→2006년 47.7%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1등급에 비해 가격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3등급 이하 D등급까지 출현율은 2006년 23.0%에서 올해 26.1%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최하위 D등급은 같은 기간 동안 0.3%에서 1.8%로 급증했다. 육질만 평가했을 경우 1등급 출현율은 2006년 53.9%, 2007년 47.9%, 2008년 47.7%로 하향세여서 고급육 생산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1등급 출현율이 감소한 데는 쇠고기 수입개방에 위기를 느낀 한우 농가들이 고급육 생산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식인 거세 비육에 부담을 느낀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세 비육할 경우 비거세 방식에 비해 성장속도가 느려 사료값 부담이 커진다. 보통 거세 비육우는 28~30개월령에 출하하지만, 비거세우는 이보다 4~6개월 빨리 출하한다.

한우 9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나주 농민 K모(63)씨는 "사료값이 지난해보다 60~70% 오른 반면, 소값은 떨어져 4~6개월 더 길러봤자 남는 게 없다"면서 "2006년까지 정부차원에서 지원된 품질고급화장려금을 부활하고, 단기 비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3개 분야 17개 사업에 4천466억원을 투입하는 등 고품질 한우 비율을 현재 50% 미만에서 60% 이상 끌어올리기로 하는 '녹색 축산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세부계획으로 ▲방목축산농가 육성 ▲축사의 환기·단열시설 개량 ▲축사 폐기물의 재생에너지 활용 등 환경개선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中企 '납품단가 협의 의무제' 반대

## "조정 신청땐 거래 단절 보복조치 … 실효성 없다" 주장

### 中企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 서명 운동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지역 중소업체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반대에 나섰다.

지역업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 거래과정에서 '단가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협의 의무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면서 "대기업에게 납품단가를 조정신청할 경우 오히려 대기업이 거래단절이라는 보복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업체들은 또 "조정협의 의무제가 실효성있게 작동하려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의권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권한 위임제도'를 마련해주거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소기업에게 직접손해배상권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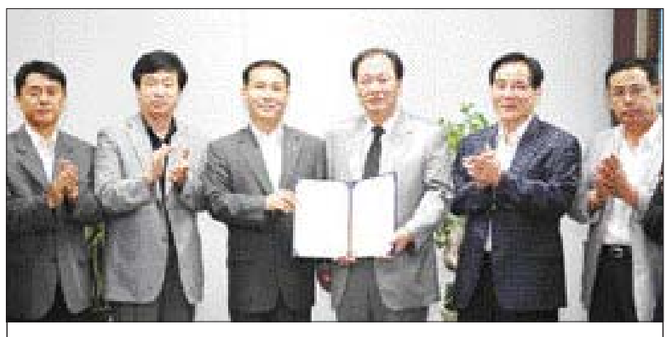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6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입법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를 위한 중소기업인 결의문' 채택 및 '중소기업인 100만명 서명운동'에 펼쳐왔다.

그러나 정부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해 입법예고를 강행함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관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추석 한복 어때요**

광주신세계 백화점 4층 '씨실과날실' 매장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21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패션한복을 선보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실크 소재 투피스 가격은 33만~40만9천원.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디자인센터-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 디자인산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

(재)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봉규)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는 20일 광주디자인센터 회의실에서 디자인산업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디자인 산업과 중소기업 발전을 모색,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사진〉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교육·행사지원 ▲정기간행물, 발간자료, 공공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과 활용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봉규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와의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 등을 반영하여 디자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디자인센터는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등 서남권 디자인거점기관으로 하우징자재혁신사업 등 디자인을 통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다.

또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전남중소기업연합회, 광주전남기계공업협동조합, 공예협동조합 등 47개 협동조합이 가입해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中企 불합리한 규제 발굴·해소

### 전남도, 50인 이상 기업 185곳 애로사항 접수

전남도는 20일 도내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현재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을 이달 말까지 찾아내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각종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50인 이상 제조업체 185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기업운영 애로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에도 18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이중 59건이 수용돼 규제해결이 가시화 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요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함으로써 전남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원·달러 환율 장중 한때 1,050원대 돌파

원·달러 환율이 1,050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장 직후 1,050원 대로 올라섰지만 외환당국의 매도개입으로 전날 종가수준에 머물렀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0.1원 내린 달러당 1,049.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6원 오른 1,052.00원으로 개장한 뒤 1,053원까지 오르며 올들어 장중 고점인 5월 21일의 1,057.30원 돌파를 시도했다.

그러나 외환당국의 개입 물량이 나오면서 1,046.50원까지 급락한 뒤 1,047~1,049원에서 공방을 벌였다. 장막판에도 당국의 추가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 볼보코리아 광주 상륙

### 내일 쌍촌동에 전시장·서비스센터 오픈

### 프로골퍼 초청 레슨·시승행사 등 이벤트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2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광주전시장(대표 강병철)과 서비스센터를 개장하고 영업을 시작한다.

광주전시장은 볼보자동차코리아의 13번째 공식전시장으로, 총면적 1천779㎡ 규모에 S80과 XC90을 비롯한 대표 모델들을 전시·판매한다. 차량전시장과 함께 오픈하는 824.7㎡ 규모의 서비스센터는 최첨단 기기를 통해 판금과 도장, 부품구매 등 고객들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전시장 오픈을 기념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프로골퍼 최홍림 초청 골프레슨(21일 오후 7시) ▲스타벅스 커피 시연회(26일 오후 2시) ▲뷰티 클래스(26일 오후 4시) ▲볼보 전 차종 시승행사(18~26일)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의 (062)372~3600.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